

런던, 反이민 시위 11만 명 모였다... “우리나라 돌려 줘”

佛·獨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연대 표명 “자유가 위협에 처했다”
'난민보트 중단·불법입국자 송환' vs '난민 환영·인종차별 반대'

영국 런던 도심에서 13일(현지 시간) 낮 대규모 반이민 집회가 열렸다. BBC·가디언 등에 따르면 현지 자국중심주의 운동가 토미 로빈슨(42)이 ‘왕국을 하나로’(Unite the Kingdom)를 내걸고 개최한 이 집회에 (경찰 추산) 약 11만 명의 지지자가 운집했다. 영국의 정식명 ‘유나이티드 킹덤(UK)’이란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4개 지역의 통합체임을 뜻한다. 이 정체성 회복의 요구를 슬로건에 담은 것이다.

집회 주도자 로빈슨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런던은 우리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당당히 서 있다”고 적었다. 불법이민 반대 집회에 ‘표현의 자유’가 거론된 것은 불법이민 비판 내지 불편함을 토로하면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화이트홀(트라팔가 광장~국회의사당 방면 도로) 지역의 시위대는 영국 국기 유니온잭과 구성체들 각각의 깃발들을 들고 키어스타머 총리를 성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었거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이들도 눈에 띄었다. 팻말과 깃발엔 ‘난민보트 중단’ ‘불법입국자 송환’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집회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며 “불법이민을 막아야 한다. 토미를 믿는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 일부 참석자가 10일 낮 미국 유타주 유타벨리데 토론회에서 저격에 숨진 미 마가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가디언에선 “찰리 커크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뿐 아니라 서방 세계 대다수의 레거시 미디어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런던 집회엔 프랑스·독일·덴마크의 동조자들이 참석한 것 또한 눈길을 끌었다. 저서 ‘국가의 자살’로 유명한 프랑수아 보수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는 연단에 올라 “우리 국민의 자유가 위협에 처했다”며 “여러분과 우리 모두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켜 득표율 2위를 기록했으나 연정 파트너에서 제외 당한 독일연립당(AfD)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 의원은 “여러분의 적이 우리의 적, 여러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며 적극적인 연대를 표명했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불법이민 반대 집회 ‘왕국을 하나로’(Unite the Kingdom)에 11만 명이 모였다. 영국 국기(유니온잭)와 이를 구성하는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 깃발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돌려달라”며 BBC 등 주요 언론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는 구호 등이 보인다. 이날 맞불 성격인 ‘인종차별주의 반대’ 집회엔 약 5000명이 모였다. EPA=연합뉴스

서유럽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정당을 공개 지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화상을 통해 ‘영국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고수위의 발언을 했다. “다음 선거가 언제든 그때까지 더 기다릴 수 없다. 의회를 해산해 새로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 “우리의 친구 찰리 커크가 이번 주 냉혹하게 살해당한 것을 좌파 분자들

이 공개 축하하고 있다”면서 “좌파란 살인 정당”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러셀 광장 근처에선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약 5000명 참가자들이 팻말에 ‘극우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어 들고 나섰다. 양측 간 충돌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런던 전역에 16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된 가운데 이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9명이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자 상황을 맞이한 문제가 경제 침체보다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약 2만8000명이 소형 보트로 영국에 들어왔다. 프랑스 측 칼레해협을 거쳐 오는 경우도 있어 영국·프랑스가 7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의거해 다음 주부터 불법입국자를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 ‘원 인, 원 아웃’이란 2010년대 초 양프 간 해협을 이민자 통제 방안을 설명할 때 언론에서 붙인 별칭으로, 영국이 난민 1명을 받아들이면 프랑스 측에서 기존 수용자 1명을 다시 데려간다는 식의 쿼터제를 말한다.

임명기자 jimm@skyedaily.com

커크 피살 회개... 유타 주지사 “정치 폭력 출구 찾아야”

(유명보수 청년활동가)

WSJ “공화당 내 화해 목소리... 다른 정치인들도 본받아야”

미국의 유명 보수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 살해 직후 공화당 내에서 ‘중요 폭력의 정치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건 발생지인 유타주의 스펠서 콕스 주지사는 1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폭력에 폭력을, 증오에 증오를 돌려주는 것이 정치 폭력”이라며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범인이 22세 청년임을 겨냥하듯 “젊은 친구들을 말한다”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름이 중요하지 않은 철학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10일 유타벨리데 야외 강연 중 암살된 커크(31)는 ‘타네포인트 USA’의 창립자로 지난 10여 년간 보수 청년층에서 큰 인기와 존재감을 보이며 ‘마가’(MAGA) 운동 아이콘의 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두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서 가정의 가치를 역설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고루하게 들릴 수 있는 마가 주장이 청년층에 받아들여지도록 청년표 확보에 지대한 기여가 인정된다. 한미동맹의 역사성과 의미에 깊은 이해를

보였으며 죽기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해 청년 기독교인들에게 결혼·출산을 고무하기도 했다. 커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현재 460만 명이다. 그가 고인된 뒤 80만 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일부 보수 유튜브가 커크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이다호주에선 커크 추모 행사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콕스 주지사가 화해를 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실에서 그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선출된 정치인이면 미국인 전체의 대표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모든 정치인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이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 때 트럼프가 “좌의 급진주의자들이 문제” “사납고 끔찍하며 정치적으로 능숙한 자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WSJ은 또 콕스가 공화당-민주당 간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으며 이런 태도로 공화당 텃밭인 유타에서 반감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콕스는 2022년 3월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했으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에 대해 “우리 위대한 나라가 상징하는 것 중 최악을 대표한다”고 했다. 2020년 대선 때도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았으나,



12일(현지 시간) 유타 주지사 스펠서 콕스(가운데)가 이틀 전 유타벨리데에서 살해된 찰리 커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정치폭력의 중단과 화해·대화를 촉구해 공화당 내의 이례적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캐시 파멜(오른쪽) 연방수사국 국장과 유타주 공공안전부 장관 보 메이슨이 함께 서 있다. UPI=연합뉴스

작년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에서 트럼프가 기적처럼 암살을 모면한 이후 입장을 바꿔 그에게 ‘국가통합 역할’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으나 여전히 당내 비주류(비트럼프)에 속한다. 임명기자 jimm@skyedaily.com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동의보감 東醫寶鑑

도라지 桔梗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다로매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언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邪 祛熱)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기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촉(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咳血-기침에 피를 토함)